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 주거에서의 지속과 변화*

- 재한(在韓)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

Continuation and Alteration of Housing of Goryoin Who Were Living in Uzbekistan and Korea: Focusing on Housing Support for Immigrant Workers in Korea*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교수 이영심
교수 최정신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Professor : Young Shim Lee

Professor : Jung Shin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범위와 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해석 및 논의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e of Goryoin housing in Uzbekistan and Korea. Using ethnographic methodologies, it was examined that 20 Goryoin households in Korea in relation to their usage of housing space firstly and also tried 20 Goryoin households in Uzbekistan with the same method.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established; 1). The majority of households in both areas preferred separated kitchen and living room areas. 2). Most households in both areas had a washing machine in bathroom and they regarded bathtub and the drain hole of the bathroom as very necessary. They all preferred separate bathroom and toilet areas in order to allow simultaneous use. 3). Their preferred seating style was chairs on sleeping and eating especially but they treated large family and guest without chairs in both areas. 4). All of them were took their shoes off and wore slippers at home usually and also had a preference for designated shoes space at the entrance to the house. 5) All of households in Uzbekistan and half of them in Korea had a carpet or mat in the bedroom or living room, both for keeping warm and aesthetic reasons. 6). The heating system of apartment in Uzbekistan was radiator and most of private houses had a modified Ondol with radiator but their preferred heating system was modified Ondol in both areas. 7). They all considered the living room as the most important housing space for family and guest in both areas.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m Lee,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kgok2-dong, Wonmi-gu, Buchen city, 420-743, Korea Tel:+82-2-2164-4836 Fax:+82-2-2164-4301 E-mail:ysle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연구과제번호: C00074)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주제어(Key Words) :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 고려인(Goryoin), 주거 공간(housing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I. 서론

이주노동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 이상이며 이들 중에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가 56.0%(404,05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우리나라는 2008년에 13만 2천명의 이주노동 인구를 더 유입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 업종을 늘리고 사업장 별로 고용허용 인원을 20.0% 더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8). 이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노동력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재한 이주 노동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노동시장에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경제와 관련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주거관련 분야에서의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다. 경기개발연구원(2006)과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실시한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실태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불안정한 주거가 결과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한겨레신문, 2006)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거 상황, 취업 형태, 수입,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07).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인 지원은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을 위한 주거관련 연구 및 지원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 중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인 조선족(朝鮮族)을 그 첫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길림성 거주 조선족과 재한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계획 요소를 제안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7). 본 연구는 그를 잇는 두 번째 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구소련(舊蘇聯) 지역의 한인동포인 고려인(高麗人)이다. 1988년 이후 들어오기 시작한 고려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 말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8).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재한 고려인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주거가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현지의 고려인들이 주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의 주생활은 어떠한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앞서 연구한 재한 고려인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문화 중 지속성이 강한 요소 그리고 동화, 변화의 가능성이 큰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고려인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 차원 넓히고 이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시 실용적인 주거계획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II.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현재 521,694명의 고려인들이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 이 중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우즈베키스탄(230,800명)이며 그 다음은 러시아(156,650명), 카자흐스탄(99,700명), 키르기스스탄(20,222명), 우크라이나(8,958명), 투르크메니스탄(2,500명), 타지크스탄(1,550명) 등이다(외교통상부, 2001).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백인(80%) 이외에 러시아인(5.5%), 타지크인(5.0%), 카자흐인(3.0%), 카라칼팍인(2.5%), 타타르인(1.5%)등 120여 개가 넘는 다민족으로 구성

1) 이들의 출신국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의 70% 이상이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 64.5%가 수도권이었다(파이낸셜뉴스, 2007.8.24).

2)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1991년 구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이 소멸된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그루지야 등 12개 공화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이다(외교통상부, 2001).

되어 있으며 고려인 역시 이곳의 소수민족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다(남혜경, 임재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 2005). 즉,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지역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다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민족(韓民族) 전통의 주거문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타(他) 문화에 대한 동화와 변형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우즈베키스탄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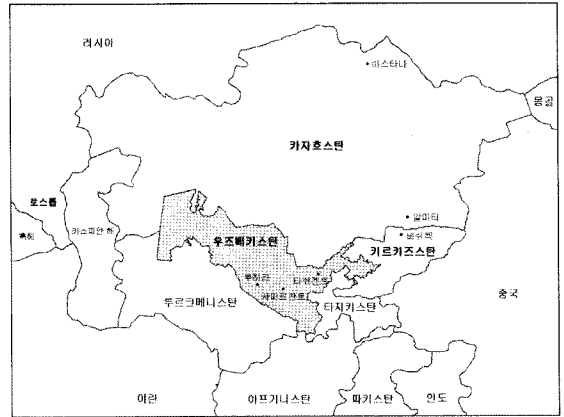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2008년 1월 11일-1월 25일에 타슈켄트 주(州)와 타슈켄트 시(市)의 세르길리과 백치미르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³⁾. 즉, 타슈켄트 주(州)에 위치한 김병화 콜호즈와 빨리타젤 콜호즈⁴⁾ 등에 거주하는 고려인 단독주택 10가구를 방문하였으며 타슈켄트 시(市)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려인 10가구를 방문, 면담하였다⁵⁾. 단독주택의 경우 가능한 한 50, 60대 이상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40, 50대 연령의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면담하고자 하였다⁶⁾.

본 연구는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질적(質的) 연구의 하나인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 study)⁷⁾의 틀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즉,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과 함께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내용에는 질문지의 항목에 기초한 질문 그리고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는 추가 질문에 대한 면담자의 응답과 부연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면담한 주택의 내, 외부를 사진 촬영하였고 일부 주택에 대한 실측을 수행하였다. 질문지는 주공간 사용 면 그리고 주생활 면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공간 사용 면은 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유형, 각 공간의 계획과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생활 면은 주공간 별 주생활,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그리고 주공간 별 바닥재 및 난방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 공간 유형, 부엌과 난방에 대한 만족 그리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거주자 만족 정도는 아주 만족한다(5점)-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측정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평균 점수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상의 결과를 선행 연구인 재한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3. 연구대상 지역과 고려인의 특성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총면적 44.7천만km²이며 총인구는 2,600만 명이다. 동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경과 접하며 남서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접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대륙성기후 지대



〈그림 1〉 조사대상지역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로 여름의 최고기온은 45도로 길고 무더우며 겨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로 짧고 온화하다. 동, 서양 교역의 요충지에 입지하여 예로부터 민족의 이동과 성쇠가 복잡하였던 이곳은 17세기 중반에 제정(帝政) 러시아의 진출로 식민지화되기 시작해 19세기 중반에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이 수립되었다(그림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것에 의한다. 1869-1870년에 발생한

- 3)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 분포하여 거주하는데 전체 인구의 약 70%가 타슈켄트 시(市)와 타슈켄트 주(州)에 거주하고 있다(남혜경, 임재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 2005).
- 4) '콜호즈'는 경제적인 공동체 일 뿐 아니라 생활, 교육, 문화, 여가 생활의 중심이자 정치적으로 고려인의 지위를 상징하는 기반이었으며 세대 간의 문화가 전승되는 단원였다(박명규, 1996). 타슈켄트에 위치한 콜호즈 중 김병화 콜호즈와 빨리타젤 콜호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좋은 대표적인 콜호즈이다. 특히 김병화 콜호즈는 독립국가연합 최초의 자영협동농장모델로 변화하여 시장경제를 도입한 모범적인 사례로 우즈베크의 현(現) 대통령인 카리모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윤인진, 2004).
- 5) 현지(現地)에서 고려인과의 면담 결과 60% 정도의 고려인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아파트 거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를 동일하게 10사례씩 선정하였다. 각기 다른 주거형태와 그 안에서의 주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사례형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모집단에 비하여 극히 적은 사례이나 질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6) 단독주택의 경우 50,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 것은 해당 연령층이 현지(現地)의 주거 및 주생활의 변천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40, 50대의 경우 현재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예전의 주거 경험과의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7) 문화인류학 바탕의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는 관찰과 면담을 주로 하면서 기록,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단계의 관찰과 면담을 끌어내는 순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이희봉, 1998).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번호	주부 이름	주부 나이	가족 구성	가족 수	주부 학력	남편 직업	주부 직업	월 소득 (달러)	주택 형태	주택 규모 (칸)	주택 소유 여부	건축경과 했수
1	C씨	65	주부	1	고졸	·	식당경영	1,000	단독주택	3	소유	61
2	M씨	50	부부	2	기술	사업	사무직	100	아파트	4	소유	20
3	M씨	59	부부	2	고졸	기술직	연금	250	아파트	1	소유	25
4	L씨	58	부부	2	고졸	연금	연금·노동	100	단독주택	4	소유	62
5	I씨	60	부부	2	고졸	고본질	고본질	800	단독주택	3	소유	20
6	K씨	49	부부	2	대졸	기술직	없음	90	아파트	2	소유	24
7	K씨	48	부부	2	고졸	기술직	없음	100	아파트	2	소유	25
8	M씨	49	부부+자녀	3	기술	사업	사업	150	아파트	3	소유	20
9	A씨	52	부부+자녀	3	고졸	노동	노동	150	단독주택	4	소유	43
10	K씨	58	부부+손자	3	대졸	사업	연금	2,000	단독주택	5	소유	47
11	C씨	39	부부+자녀	3	고졸	사무직	사업	500	단독주택	6	소유	40
12	S씨	65	부부+손자	3	고졸	없음	연금	300	단독주택	4	소유	30
13	H씨	48	주부+자녀+손자	3	대졸	·	없음	200	단독주택	4	소유	40
14	K씨	43	주부+자녀	3	기술	·	관리직	100	아파트	2	소유	32
15	S씨	35	부부+자녀	4	기술	없음	기술직	100	아파트	3	소유	21
16	M씨	58	부부+자녀+손자	4	고졸	연금	연금	150	아파트	4	소유	20
17	H씨	59	부부+자녀+손자	5	고졸	연금	연금	200	아파트	5	소유	20
18	P씨	50	부부+자녀+손자	5	대졸	없음	의사	600	아파트	4	소유	20
19	L씨	84	주부+자녀+손자	5	기술	·	연금	700	단독주택	7	소유	44
20	K씨	54	부부+자녀+손자	6	고졸	농사	없음	50	단독주택	4	소유	50

주.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음.

주. 주부 학력에서 '기술'은 구소련 시대의 의무 교육인 10학년(고등학교)을 이수한 후 3년 혹은 4년 동안 재봉, 요리, 미용 등의 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이다.

주. 직업에서 '고본질'은 수박, 양파 등의 농사를 대단위로 하는 지역에서 임차농으로 농사를 짓는 '계절이동농업'을 뜻하며 대개 봄에 가서 가을에 돌아온다.

한반도 이북 지역의 대기근으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였으며 1917년 즈음에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인구가 10만 여명에 달하였다.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구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1937년에 강제 이주시킨 고려인의 수는 총 171,781명(36,442가구)이었다(윤인진, 2004).⁸⁾ 그러나 고려인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뛰어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척박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일구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인들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소수 민족들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고려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23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인구가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17만 명으로 집계된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⁹⁾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고려인들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경우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2005년 말부터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예전의 구소련 체제에서 고려인들은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직장에서 주택을 공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나 사회 및 경제 체제가 변화하면서 젊은 고려인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Ⅲ.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8) 1937년 당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20,789가구 98,454명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으며, 16,307가구 74,500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송되었다(윤인진, 2004).

9) 본 내용을 언급한 김 부르트는 2008년 6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하고 있는 고려인 신문인 '고려신문'의 편집장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즈베키스탄 내의 고려인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는 50세-59세가 9사례(45.0%)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5사례(25.0%) 그리고 60-69세가 3사례(15.0%)였으며 평균 연령은 54.2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3.2명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부부로 구성된 경우와 부모와 손자녀 세대로 구성된 경우가 각각 6사례(30.0%)씩으로 가장 많았다. 주부의 학력은 10사례(50.0%)가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5사례(25.0%)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기술학교를 이수하였으며 4사례(20.0%)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사업을 하는 경우와 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각각 3사례(15.0%)씩이었으며 연금을 받거나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3사례(15.0%)씩으로 파악되었다. 주부의 경우는 연금을 받는 경우(6사례:30.0%) 이외에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3사례(15.0%)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소득 정도는 월 150불 이하인 경우가 10사례로 가장 많았고 200불-800불이 8사례였으며 1,000불 이상인 경우가 2사례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월수입은 382불이었는데 이는 이들의 평균 월수입이 200불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조사대상자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땅집)이 10사례, 아파트(층집)가 10사례였으며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의 규모는 4칸짜리가 8사례(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칸짜리가 4사례(20.0%), 2칸짜리가 3사례(15.0%)의 순이었다.¹¹⁾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건축연수는 아파트의 경우 평균 22.7년이었으며 단독주택은 평균 43.7년이였다. 단독주택의 경우 절반이 조사대상자의 부모님이 주택을 건축하였거나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건축한 경우였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조사대상 지역의 건설회사에서 건축하였다.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주거의 시대별 변천과 주생활의 변화

본 내용은 조사대상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를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주거 유형을 제시하였다.¹²⁾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땅집)과 아파트(층집)로 분류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시대별 특징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다.

1) 단독주택(땅집)

연해주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시르다리아, 카라칼팍, 사마르칸트, 호레즘, 부하라 등지로 이주된 고려인들은 우즈베크인의 집에 함께 기거하거나 학교, 이슬람 교회, 가족우리에도 거주하였다. 일부는 토굴(젬랑카)에 거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땅을 파고 들어가 구들을 놓고 땅 위

에는 깔(갈대)과 돌, 흙 등으로 지붕을 만든 것이었다. 1937년 강제이주 직후에 지었던 주택은 대부분 깔을 사용하여 지붕을 짓고 기둥을 세운 후 흙으로 도배하거나 혹은 흙덩이를 문쳐 쌓아올린 형식이였다. 1937-1938년에 걸쳐 각 지역에서 고려인 콜호즈(집단농장)가 형성되었고 이때부터 나무와 시멘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1940년 이후에는 벧장(흙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흙과 짚 그리고 물과 소똥을 섞은 후 틀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든 후 햇볕에 말린 것이었다. 1940년대 초에 지은 주택은 2칸 혹은 4칸 주택이었으며 주택 두 채를 옆으로 붙여짓기도 하였다. 콜호즈에서 지어 준 주택에는 대부분 구들이 없었으며 고려인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이영심, 이상해, 2004).

〈그림 2〉는 1940년대 초 타슈켄트 주 양기울에 건축한 고려인의 주택으로 정지 1칸과 구들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고려인이 현지(現地)에 정착하는 이 시기에 건축한 주택은 2칸 혹은 3칸의 주택으로 2칸의 경우 정지 1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방에 구들을 놓았던 것이 선행연구에서도 파악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칸을 덧붙이거나 별채를 지으면서 그 형태가 변화하였다(이영심, 이상해, 2004; 국립민속박물관, 1999).¹⁴⁾ 〈그림 2〉에서 정지는 흙바닥에 시멘트를 얇게 펴 발라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고 일을 하였으며 방을 향하여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었다. 아궁이는 정지 바닥의 아래에 위치하여 평소에는 나무판자로 덮어두었고 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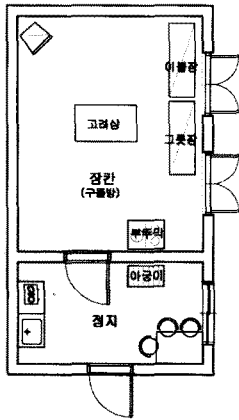
10) 2007년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가가 관장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1인당 월급이 평균 200불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김부르트, 2008). 개인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는 보통 월 300-400불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 외에 기타의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월 소득이 1,000불 이상인 5사례 중 4사례는 한국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1사례는 고려인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11) 연구대상 지역의 주택 규모는 보통 '칸' (방)의 수로 표시하는데 '칸' 수는 침실 뿐 아니라 거실까지 포함한다. 1칸은 보통 3.8mX3.1m의 크기로 3칸 아파트가 74평방미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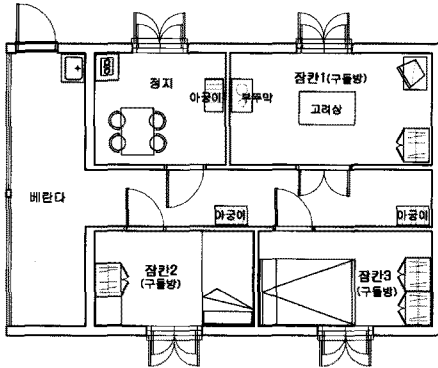
12) 〈그림 2〉-〈그림 4〉는 본 연구의 면담자들이 직접 그리고 설명한 것이며, 공간 명칭은 '참칸' 과 '구들방' 등 현지에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3) 〈그림 2〉는 1940년대 초 타슈켄트 주 양기울 지역에 건축되었던 주택으로 본 연구의 면담자인 M씨가 1958년-1977년까지 거주하였다. 면담자 M씨는 양기울 지역은 당시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였던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그림 2〉와 같은 정지와 구들방으로 구성된 일(-)자형 주택이 고려인의 보편적인 주택 형태였음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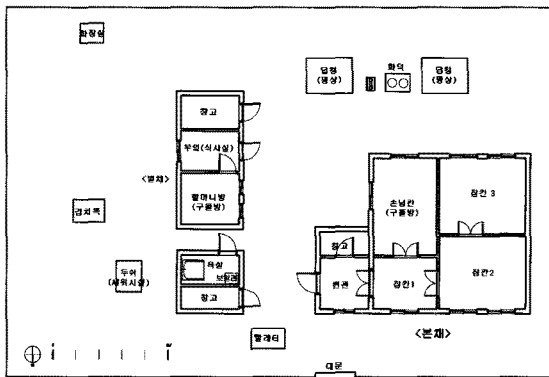
14) 당시 콜호즈에서도 정지와 구들방으로 구성된 일(-)자형 주택이 일반적이었는데, 팔리타젤 콜호즈의 경우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일(-)자형 주택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2) 1940년대 초에 건축한 타슈켄트 주 양기울의 고려인 주택(M씨댁)



(그림 3) 1940년대 초에 건축한 김병화 콜호즈의 고려인 주택 (B씨댁)



(그림 4) 본채와 별채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배치도 (김병화 콜호즈: K씨댁)

떨 때에는 나무판자를 열고 내려가 앉아 불을 넣었는데 주된 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다. 정지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었고 이미 가스가 보급되어 가스레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초

기에는 가스 사용을 꺼려하여 대부분 석유코로를 사용하였다. 구들방 안에는 밥과 국 그리고 물을 끓일 수 있는 부뚜막이 있었고 그 높이는 약 70센티 미터 정도였다. 구들방의 바닥에는 짚을 재료로 하여 엇갈려 꼬아 만든 짚개를 방 크기에 맞게 깔았다. 앞마당에는 감자굴과 김치굴이 있었으며 주택 옆에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와 석탄, 장작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고 뒤편에는 화장실이 있었다.¹⁵⁾

한편 (그림 3)은 타슈켄트 주 김병화 콜호즈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고려인 주택으로 1940년대 초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당시 콜호즈에서 건축하였던 일반적인 주택 유형은 복도가 있는 전(田)자형 주택이었으며 한 주택에 두, 세가족이 함께 살기도 했다(국립민속박물관, 1999). (그림 3)은 정지 1칸과 구들방 3칸의 주택으로 정지에서 불을 땀으며 구들방 안에는 부뚜막이 있었다. 부엌에서는 가스로 조리를 하였으며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고 구들방 안에 있는 부뚜막은 주로 차(茶)를 만들기 위한 물을 끓이거나 신발을 말리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건너편의 두 방은 각기 아궁이가 따로 있었는데 모두 방 바깥의 마루에서 아래로 내려가 불을 때도록 되어 있었다. 이 아궁이를 '베치카'라 불렀으며 연료는 나무와 석탄이었다. 주택 입구에 위치한 베란다에는 신발을 벗고 옷을 걸어 두었으며 마늘과 야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각 방의 통로 역할을 하는 복도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매우 추웠다.¹⁷⁾

콜호즈에서 볼 수 있는 고려인의 주택은 대개 두 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점차 확장한 것으로써 기존의 작은 채 옆에 큰 채를 짓거나 혹은 기존의 작은 채에 칸을 덧붙이고 그 옆에 별도의 작은 채를 또 짓는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림 4)는 김병화 콜호즈에 있는 주택의 배치도로 본 연구의 면담자인 K씨가 거주하고 있다.¹⁸⁾ 처음에 건축한 큰 채는 손넌칸과 잠칸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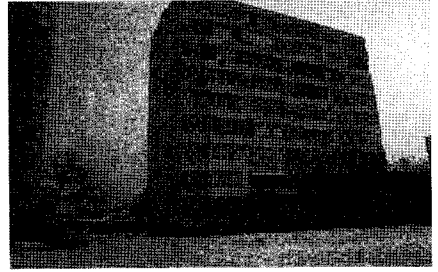
- 15) (그림 2)에 대한 설명은 본 도면을 그린 면담자 M씨에 의한 것이다.
- 16) (그림 3)은 고려인 콜호즈에서 건축한 초기의 주택을 본 연구의 면담자가 직접 그린 것이다. 즉, (그림 3)은 면담자인 B씨가 김병화 콜호즈에서 1940년-1978년까지 거주한 주택으로써 B씨는 콜호즈의 주택은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로 지어 주었으며 1960년대-1970년대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기존의 주택에 칸을 덧붙이거나 별채를 지으면서 주택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였음을 언급하였다.
- 17) 복도를 낀 전(田)자형의 주거 형태는 전적으로 구소련 식 콜호즈 살림집의 공통분모임이 보고되었다(국립민속박물관, 1999).
- 18) 콜호즈의 주택들은 조합에서 지었으므로 본채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칸을 덧붙이거나 별채를 추가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면담자 K씨는 김병화 콜호즈의 주택들은 대부분 (그림 4)와 같은 유형으로 주택에 따라 칸들의 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용하며 조리과 식사 그리고 가족단위는 작은 채에서 하고 있다. 마당에는 가마솥을 거는 부뚜막과 평상을 두어 여름에는 이곳에서 조리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⁹⁾ 전통적으로 별채에 계획했던 욕실은 1980년대 이후 주택 내에 계획하기도 하는데 가스를 사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마당에는 샤워 시설(душ)을 만들어 밭일을 하다가 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창고에는 저장식품과 야채 그리고 나무와 석탄 등의 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주택 주변은 보통 8숫까-20숫까에 이르는 텃밭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규모는 콜호즈에 따라 다양하다.²⁰⁾ 텃밭에는 배추, 무, 고추, 상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며 체리나무, 포도나무 등의 유실수도 키운다. 또한 마당 한 쪽에는 닭과 오리,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각 가정의 소득원이기도 하다. 주택의 외벽은 50-70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두껍게 하여 여름철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콜호즈에 거주하던 많은 고려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는 고려인들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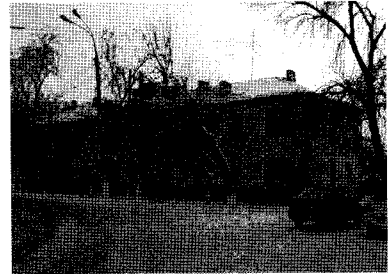
2) 아파트(층집)

구소련 시대의 주택 건설과 배분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모두 관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 도시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을 국유화하는 한편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커뮤날 아파트(Communal Apartment)는 이 시기에 공급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한 호에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이영심, 이상해, 2004).²¹⁾ 그러나 커뮤날 아파트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1945년 이후 '세메이노예 오브세지티예'(가족기숙사)가 공급되었다. 이는 공장 등의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주택 형태로 커뮤날 아파트와는 달리 한 호에 한 가족이 살았으나 화장실과 욕실은 여러 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이는 1층과 5층, 9층 형식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형식으로서 사용되고 있다.(사진1)²²⁾

점차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면서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따라 1955년에 구소련의 전 지역에 티포칼 프로젝트(Typical Project)를 시행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인 모스크바에서 몇 개의 계획안을 만들고 CIS국가들에게 주어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우즈베키스탄 역시 이 계획안에 따라 단순한 외형과 유사한 색상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1960년대에는 '후르쇼프카'라 불리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는 당시 집권자였던 후르시초프의



(사진 1) 1940년대에 건설된 가족기숙사 세메이노예 오브세지티예



(사진 2) 1960년대에 건설된 후르쇼프카 아파트

이름을 딴 것으로 저렴한 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영심, 이상해, 2004)(사진 2). 이 아파트는 대부분 5층이었고 베란다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었다. 주택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한 방을 통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협소한 공간 때문에 방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욕실에는 욕조, 세면대, 변기를 함께 두었고 부엌 역시 최소한의 크기로 계획하였다. 당시에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수와 구성, 그리고 자녀의 성별 등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데 구소련이 와해된 이후에는 아파트의 거주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국영주택이 사유화되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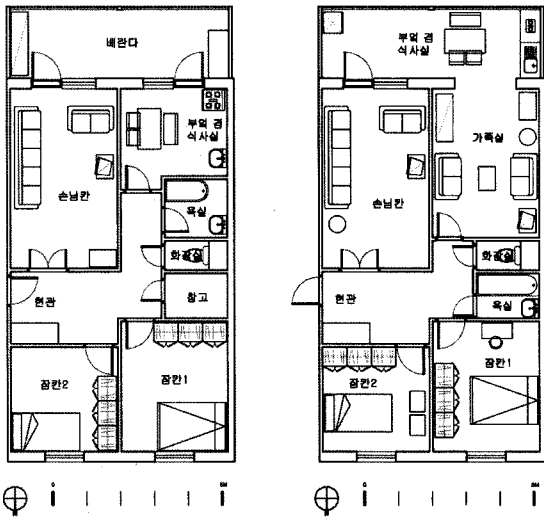
19)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별도의 여름용 부엌을 위한 건물을 짓거나 혹은 야외에 여름 부엌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여름철에 부엌에서 조리를 하여 주택 전체가 더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주택 요소라 할 수 있다.

20) 구소련 시절 집단농장에서는 가족이 많은 조합원의 경우 넓은 규모의 텃밭을 주었다. 김병화 콜호즈에서는 자녀들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20숫까(1숫까: 10m X 10m)의 텃밭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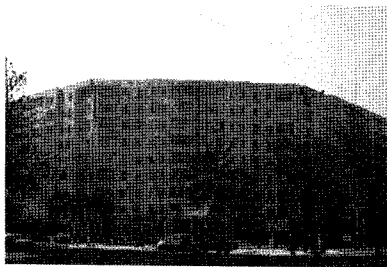
21) 커뮤날 아파트는 여러 가족이 아파트 한 호에 거주하는 형태로 방 한 칸에 한 가족이 살았다. 가족원이 가장 많은 가족에게 제일 큰 방을 주었는데 이후 국가로부터 주택을 배급받아 차례로 나가면서 맨 끝에 남은 가족(사람)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였다.

22) 타쉬켄트 시 근교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면담자 M씨(女: 50세)의 설명이다.

23) 타쉬켄트 시 근교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면담자 K씨(男: 58세)의 설명이다.



〈그림 5〉 타슈켄트 시의 고려인 아파트 (M씨댁 : 개조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모습)



〈사진 3〉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2000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우즈베키스탄은 1966년에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를 5층으로 건설하였으나 대지진 이후에는 내진공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대부분 9층으로 건축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조립식 패널(panel) 혹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나 최근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타슈켄트 중심지에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혹은 방범 시설 등은 그 수준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사진 3).²⁴⁾

〈그림 5〉는 본 연구의 면담자인 고려인 M씨가 거주하는 손님칸(거실)과 2개의 잠칸(침실)으로 구성된 3칸의 벽돌조 아파트로 베란다와 욕실 등을 개조한 것이다.²⁵⁾ 난방과 온수공급은 모두 가스를 연료로 하는 라디에타식 중앙난방으로 이루어지며 난방은 10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공급된다. 현관에는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段差)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신발은 보통 현관문 옆에 벗어둔다. 현관 옆에는 불박이 수납장 혹은 옷걸이를 구비하여 가족과 손님 모두 외투는 이곳에 보관하며 수납장 아래에는 슬리퍼를 준비해 두고 있다. 부엌은 환기를 위해 대개 베란다 가까이

위치하는데 부엌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베란다를 개조하여 부엌을 만들고 기존의 부엌을 식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베란다 전체에 고정식 평상을 설치하여 여름에 가족단위와 손님접대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차(茶)를 많이 마시는 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택 요소이다. 베란다의 창은 중간에 간격을 둔 두 겹의 창문이 전통적이었으나 점차 페어 글라스(pair glass)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욕실과 화장실은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장실의 뒤편 벽에는 배수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문을 계획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전에는 아파트 입주 시 개인적으로 재매감 혹은 개조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옆집 혹은 윗집으로 확장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²⁶⁾

3. 주공간

1) 주거 공간의 사용

조사대상 고려인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2)와 같이 분류되었다. 조사대상 주택의 대부분(95.0%)이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고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유형(K·D+L)으로 이에 대한 거주자 만족 정도는 평균 4.0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사진 4). 조사대상자들은 부엌과 거실의 통합에 대해서 85.0%가 분리된 형태를 선호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조리 시의 냄새 때문이었다. 이는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과 중국 거주 조선족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문화로 인해 부엌과 기타 공간을 분리한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조사대상자들의 음식문화는 러시아식과 중앙아시아식 그리고 한국식

〈표 2〉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및 만족정도

유형	f(%)	만족 정도
K·D+L	19 (95.0)	4.0점
L+D+K	1 (0.5)	4.0점
계	20 (100)	

주. K·D+L: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
K+D+L: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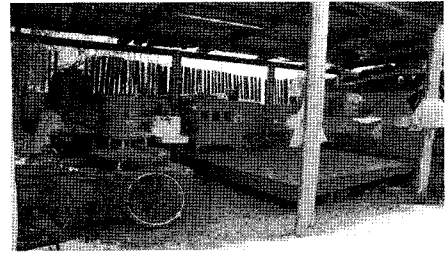
24) 타슈켄트 외곽에 위치한 폴리탈렌 콜호즈에 거주하는 면담자 K씨(男: 58세)의 설명이다.

25) 아파트 거주자들과의 면담 결과, 현지(現地)의 아파트에서 베란다와 욕실의 개조가 일반적인 개조 항목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부엌과 연결한 베란다의 개조가 매우 보편적임을 알 수 있었다.

26) 타슈켄트 근교의 아파트 〈그림 5〉에 거주하고 있는 M씨(女: 50세)의 설명이다.



〈사진 4〉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형태(단독주택:A씨택)



〈사진 5〉 야외 조리대와 평상이 있는 단독주택의 여름부엌(K씨택)

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부엌과 거실의 연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또한, 주거 공간을 '잠칸', '부엌칸', '거실칸' 등 기능 별로 분리 계획하는 구 소련 지역의 관습적인 주 공간 계획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재한 고려인의 경우 부엌과 거실을 분리한 유형에 대한 거주자 만족 정도가 통합한 유형보다 약간 더 높았고 이들 대부분이 부엌과 기타 공간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8).²⁸⁾ 즉, 본 연구 결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부엌을 기타 공간에서 분리 계획하는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부엌 공간의 사용

조사대상자들이 '정지' 혹은 '꾸흐냐'라 칭하는 부엌에 대한 거주자 만족 정도는 평균 3.0점으로 보통 정도로 파악되었다. 부엌의 만족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엌의 크기로 사료되는데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9 사례:90.0%)의 조사대상자들이 부엌 크기가 작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이 결과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2사례(20%)만이 부엌의 협소함을 언급하였던 결과와 비교된다. 조사대상 지역 아파트의 부엌 크기는 3칸 아파트의 경우 3.0m × 2.5m의 크기로 2칸 혹은 1칸 아파트의 경우 그 면적은 더욱 감소하는데 여기에 식사실을 겸해야 하므로 그 협소함이 더욱 심화된다. 조사대상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5사례(50.0%)가 부엌을 베란다로 옮기는 개조를 하였는데 이 중 3사례는 2칸 아파트로서 개조를 통해 베란다는 조리 영역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그림5)〈사진8〉.

조사대상 지역의 부엌은 전통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의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고려인들, 부엌 큰 것 좋아 하오" 라고 언급한 것에서 이들의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고려인들이 러시아인들에 비하여 친척과 손님 초대가 매우 많음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역시 부엌 크기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았던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 취사 연료로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여름철에는 조리로 인하여 집 전체가 가열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야외에 혹은 별채로 여름용 부엌을 따로 두고 있으며 여기서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5).

한편 선행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부엌에 대한 거주자 만족 정도는 보통이었으나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작업대와 부엌 공간이 비좁다고 언급함으로써 현재 이들의 부엌에 대한 만족 정도는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 재한 고려인 주택의 대부분이 부엌에 난방이 되어 있었고 온수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부엌에 대한 요구의 대부분은 부엌 면적에 관한 것이었다.²⁹⁾ 이는 중국 거주 조선족 그리고 재한 조선족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로 미루어 볼 때 넓은 부엌을 선호하는 데에는 손님 접대 등과 관련한 관습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3) 욕실 공간의 사용

조사대상 주택 욕실의 설비 구성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차이가 있었다(표 3). 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변기와 세면대·욕조로 구성된 경우(5사례:50.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독립된 변기와 욕조로 구성된 경우(3사례:30.0%)였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에 비하여 그 구성이 매우 다양했는데 세면대·욕조 1실과 야외화장실로 구성된 경우,

27) 조사대상 지역에서 대표적인 러시아식 음식은 수프(보르쉬)와 러시아식 빵이며, 우즈베크 음식은 기름밥(플로프), 샴리릭(꼬치 구이), 우즈베크식 빵(베료시카) 등이다. 그리고 고려인의 대표적인 음식은 된장과 김치, 개장국을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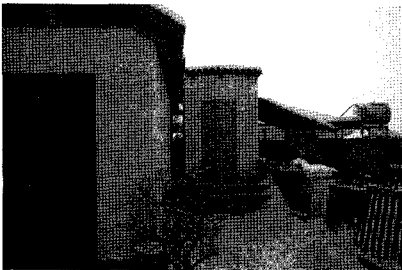
28) 재한 고려인의 부엌과 거실의 분리 유형에 대한 거주자 만족 정도는 3.9점 그리고 통합 유형의 경우 3.3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90.0%가 부엌과 기타 공간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였다.

29) 재한 고려인의 90.0%가 작업대와 부엌 공간이 비좁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부엌에 대한 거주자 만족 정도는 3.3점이었다. 재한 고려인 주택의 90.0%가 부엌에 난방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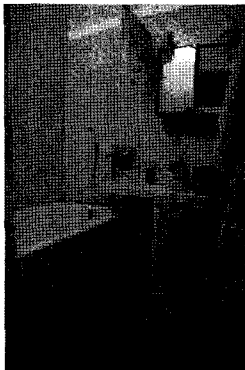
〈표 3〉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욕실공간 계획

욕실 공간의 조합	아파트(%)	단독주택(%)
세면대, 욕조 1실 + 변기	5(50.0)	.
욕조 + 변기	3(30.0)	1(10.0)
세면대, 욕조, 변기 1실	1(10.0)	.
세면대, 욕조, 변기 1실 +야외화장실	.	1(10.0)
세면대, 욕조 1실 +야외화장실	.	2(20.0)
욕조 +야외화장실	.	2(20.0)
두쉬 +야외화장실	.	2(20.0)
세면대, 욕조1실 + 변기+야외화장실+사우나실	.	1(10.0)
세면대+욕조+야외화장실+사우나실	.	1(10.0)
세면대, 욕조 1실+세면대, 변기 1실	1(10.0)	.
계	10(100.0)	10(100.0)

주. 두쉬: 단독주택의 야외 샤워실로 발일을 하다가 샤워할 수 있게 한 것임.



〈사진 6〉 단독주택 마당에 위치한 야외화장실 (벨리타젤 콜호즈: L씨택)



〈사진 7〉 욕실에서의 세탁기 사용(아파트:P씨택)

중 2사례는 주택 내 화장실이 있으나 별도로 야외화장실을 두었는데 이는 텃밭 일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18사례(90.0%)가 욕조는 꼭 필요하다고 답하여 욕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사우나실을 별도로 만든 경우가 2사례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특히 아파트는 욕실 바닥에 배수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70.0%(14사례)가 배수구가 있는 것이 좋다고 답함으로써 배수구의 필요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택의 욕실은 변기와 샤워시설만으로 구성된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욕조가 있는 경우는 적었는데 재한 고려인의 대부분이 욕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고려인 역시 욕조를 필수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욕실 계획에는 욕조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³⁰⁾ 구소련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욕실 바닥에 배수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려인 역시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에 적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한 고려인의 대부분이 배수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므로 이들을 위한 욕실에는 배수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즉, 양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배수구의 사용에 있어 구소련 지역의 관습을 지속하기 보다는 실생활에 유용한 쪽을 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욕실 형태는 재한 고려인의 55.0%(11사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65.0%(13사례)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욕실은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리 계획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욕조와 야외 화장실로 구성된 경우, 두쉬(야외샤워실)와 야외 화장실로 구성된 경우가 각각 2사례(20.0%)씩 이었다(사진 6). 조사대상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 변기를 독립하여 계획한 경우가 대부분(18사례:90%)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65.0%(13사례)가 변기를 따로 계획한 형태를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욕실과 화장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이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야외화장실을 둔 경우가 전체의 90.0%(9사례)였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급배수 설비가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단독주택

30) 재한 고려인 주택의 욕실은 변기와 샤워시설로 구성된 형태가 60.0%였고 욕조가 있는 경우는 10.0%에 불과했는데 이들의 80.0%가 욕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세탁 공간의 사용

조사대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세탁 공간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 주택의 19사례(95.0%)가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의 경우 모두 욕실에 두었으며 단독주택 역시 욕실(7사례:77.8%)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마당과 부엌에 둔 경우가 각각 1사례씩이었다(사진 7). 조사대상자들의 65.0%(13사례)가 손빨래를 하였는데 이 중 9사례(68.2%)가 욕조 혹은 세면대에 서서 하였고 조사대상자 중 빨래 살기를 하는 경우는 8사례(40.0%)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세탁기를 두는 가장 좋은 장소로 욕실(15사례:75.0%)을 들었는데 이는 세탁기기 및 급배수 설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세탁기를 보유한 조사대상 주택 중 12사례(63.2%)가 물을 부어 세척만 하는 유형을 사용하고 있어 급수와 탈수를 하기 위한 장소로 욕실을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부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사례(50.0%)로 가장 많았고 식사실(1사례)로 사용하거나 혹은 평상(1사례)을 만들어 단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³¹⁾ 즉, 베란다는 생활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곳을 세탁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독주택 역시 급배수 설비가 완전하게 구비되기 전까지는 욕실이 세탁 장소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대부분이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세탁기를 욕실에 두었는데 이는 욕실 외에 적절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재한 고려인의 대부분이 세탁기를 둘 적정 장소로 욕실을 들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대부분이 세탁기의 적정 장소로 욕실을 든 것과 공통점이 있다. 이로 보아 고려인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장소는 현재의 주거 상황 뿐 아니라 관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현재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재한 고려인의 경우에 베란단을 가장 적절한 장소로 언급함으로써 세탁기의 사용 장소에 대한 선호는 주거 계획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³²⁾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65.0%가 손빨래를 하고 있어 손빨래가 일상적인 작업으로 파악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입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좌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설비가 요구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

5) 주택개조의 내용과 요구

조사대상 주택 중 개조를 한 경우는 아파트는 7사례(60.0%)였고 단독주택은 10사례(100.0%)로 모두 개조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베란단을 개조한 경우가



〈사진 8〉 베란다로 옮긴 부엌과 식사실(아파트: M씨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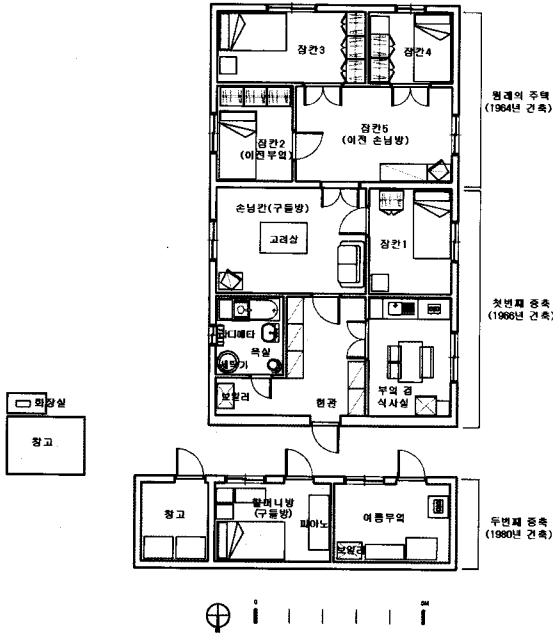


〈사진 9〉 단독주택의 본채(오른쪽)와 별채(왼쪽)의 모습 (김병화 콜호즈: K씨 덕)

가장 많았는데 부엌을 베란다로 옮긴 경우가 5사례(50.0%)로 가장 많았고 부엌과 베란다 사이의 벽을 없애 부엌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경우가 1사례 그리고 베란다에 평상을 놓아 휴식공간으로 만든 사례가 있었다. 부엌을 베란다로 옮긴 경우 원래의 부엌 공간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TV를 두고 가족단란을 하는 가족실(2사례)로 사용하거나 혹은 식사실(1사례)로 사용하였으며 2사례는 물건 수납 혹은 보조 식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사진 8).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건축년도는 43.7년으로 전체 10사례 모두 최초의 주택에 칸을 덧붙이거나 별채를 짓는 등의 개조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9). 즉, 기존의 주택에 칸을 덧붙이거나 신축을 하여 부엌, 구들방, 욕실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넓게 한 경우가 각각 8사례씩이었으며 손님칸을 새로 하거나 혹은 넓게 만든 경우가 5사례였다(그림 6). 또한 기존의 주택에서 구들방을 없애고 부엌을 넓게 확장한 경우가 1사례 있었으며 구들방을 입식 침실로 개조한 경우가 1사례 있었다. 즉,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조사대상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부엌을 넓게 그

31) 아파트 베란다에 평상을 까는 것은 단독주택의 마당에 있는 평상(담창)을 응용한 것으로써 여름에는 여기에서 차(茶)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가족단란 혹은 손님 접대를 한다.

32) 재한 고려인들의 80.0%가 세탁기를 사용하였고 68.8%가 욕실에 세탁기를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한 고려인의 72.7%가 욕실 외에 적정 공간이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65.0%가 세탁기의 적정 장소로 욕실을 들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75.0%가 세탁기의 적정 장소로 욕실을 든 것과 공통점이 있다. 재한 고려인 중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18.8%였다.



〈그림 6〉 단독주택의 개조 및 증축 사례(블리타젤 콜호츠: L씨댁)

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주어진 평면계획과 실생활 면에서의 차이를 좁히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들(9사례:90.0%)은 단독주택 거주자들(2사례:20.0%)에 비하여 부엌 크기의 협소함에 대하여 더 많이 언급하였는데 이는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하여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개조의 가능성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부엌 개조에 대한 희망 사례가 단독주택이 1사례였던 반면 아파트는 4사례로 나타난 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주생활

1) 주공간 별 주생활

조사대상자들의 주공간 별 주생활 내용은 <표 4>와 같다. 단독주택에서 구들방인 큰방이 부부침실과 거실의 기능을 겸하는 4사례는 제외하고 나머지 16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거실에서 하는 주요 활동은 공식적인 손님접대와 가족단란 그리고 대가족의 식사 등이었다(사진 10). 조사대상 지역에서 거실은 '손님칸'이라고 부를 정도로 손님을 접대하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데 많은 손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거실에 고려상(교자상)³³⁾을 펴고 바닥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가족과의 식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족이 모이는 중심 장소 역시 거실로 가족들은 이곳에서 TV를 보며 단란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외

〈표 4〉 주공간 별 주생활 내용

N = 16

주거공간 주생활내용	거실f(%)	부엌 (식사실)f(%)	부부침실 f(%)	자녀침실 f(%)
취침	2(12.5)	·	16(100.0)	11(68.8)
손님취침	6(37.5)	·	1(6.3)	10(62.5)
가족단란	14(87.5)	·	·	3(18.8)
가족식사	·	16(100.0)	·	·
대가족식사	14(87.5)	1(6.3)	·	·
자녀공부	1(6.25)	2(12.5)	·	4(25.0)
다림질	12(75.0)	1(6.3)	·	3(18.8)
재봉	13(81.3)	·	·	3(18.8)
독서	12(75.0)	·	3(18.8)	·
친한손님접대	10(62.5)	6(37.5)	·	·
공식손님접대	16(100.0)	·	·	·
TV시청	13(81.3)	2(12.5)	1(6.3)	·

*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사진 10〉 가족단란이 이루어지는 손님칸(거실)(아파트:W댁)



〈사진 11〉 휴식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손님칸(거실)(아파트:M댁)

에 조사대상자들은 거실에서 다림질(12사례:75.0%)과 재봉(13사례:81.3%) 그리고 독서(12사례:75.0%)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거실이 다목적 공간으로서 전통주택에서의 안방과 가족실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김미희, 1991)〈사진 11〉. 조사대상자들의 일상적인 가족 식사는 부엌의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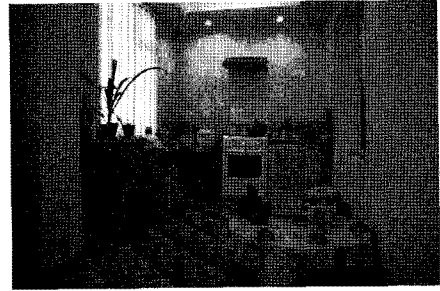
33)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교자상을 보통 '고려상' 혹은 '조선상'으로 부른다.

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이었으며 친구나 이웃 등 친한 손님의 경우 부엌에서 이들을 접대하는 경우도 6사례(37.5%) 있었다. 부부 침실에서는 부부 취침이 주요한 활동으로써 독서(3 사례:18.8%) 이외에는 개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침실의 용도를 '잠간에서는 잠만 잔다' 라고 응답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침실에서 기타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관습으로 사료되었다. 자녀 침실의 경우 자녀 취침이 11사례(68.8%)였고 손님취침(10사례: 62.5%) 역시 자녀 침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외의 활동은 자녀 공부(4사례:25.0%)와 다림질(3사례:18.8%), 재봉(3사례:18.8%)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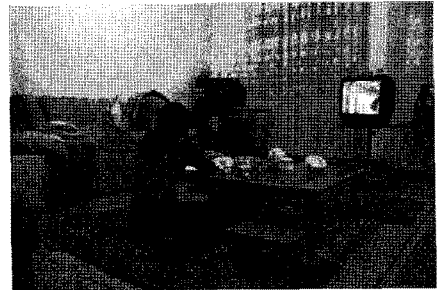
한편, 재한 고려인의 경우는 주택 유형이 부엌과 방 1, 2칸 혹은 원룸 형식이 다수 있어 주공간 별 주생활의 내용 분석을 생략하였다.(이영심, 최정신, 2008).³⁴⁾

2) 주생활 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에서 입식과 좌식 정도는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가족취침은 조사대상자 중 16사례(80.0%)가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 입식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손님 취침은 13사례(72.2%)가 바닥에 이부자리를 펴는 좌식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16사례:80.0%)의 조사대상자들이 평상 시 식탁을 사용하여 식사하고 있었으나 대가족 혹은 많은 손님을 접대할 경우 거의 모든 경우(19사례:95.0%)에 교자상을 사용하여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12). 이는 한정된



<사진 12> 좌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및 손님과의 식사 (아파트: S씨 덕)



<사진 13> 구루바차(꺄개)와 목독산(낮은 의자)등으로 구성되는 좌식의 손님접대(아파트: P씨 덕)

공간에서는 식탁보다 좌식 상차림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손님접대는 친구 혹은 이웃인 경우 입식(8사례:40.0%)보다는 좌식(11사례:55.0%)이 다소 높았으며 공식적인 손님 접대를 하는 경우엔 소파를 사용(14사례:70.0%)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13). 화장은 입식이 12사례(85.8%)로 주로 침실에서 서서 하였으며 재봉은 좌식인 경우가 9사례(56.3%)로 입식(6사례:37.5%)보다 약간 더 많았고 빨래 개키기(10사례:50.0%) 역시 바닥에 앉아서 하는 좌식의 비율이 입식보다 약간 더 높았다. TV 시청은 소파를 사용하는 입식(8사례:40.0%)과 바닥에 앉는 좌식(5사례:25.0%) 그리고 이 둘을 겸용하는 경우(7사례:35.0%)가 유사하였는데 이는 주로 TV를 보며 이루어지는 가족단란 역시 소파와 바닥을 겸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반 수(10사례:50.0%)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독서는 침대 혹은 소파에서 입식(9사례:69.2%)으로 하였으며 가사 작업 중 다림질은 서서 하는 입식(14사례:82.4%)의 비율이 높았고, 손빨래 역시 바닥에 앉기보다는 입식(7사례:70.0%)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자들 중 16사례(80.0%)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배추 씻는 작업은 바닥에 앉는 경우(9사례:56.3%)와 서서 하는 경우(7사례:43.7%)가 비슷하였던

<표 5>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 정도

N = 20

주생활내용	기거양식	좌식f(%)	입식f(%)	겸용f(%)
취침(가족)		3(15.0)	16(80.0)	1(5.0)
취침(손님)		13(72.2)	3(16.7)	2(11.1)
가족식사		3(15.0)	16(80.0)	1(5.0)
대가족(손님)식사		19(95.0)	1(5.0)	.
손님접대(친구)		11(55.0)	8(40.0)	1(5.0)
손님접대(공식)		6(30.0)	14(70.0)	.
가족단란		5(25.0)	5(25.0)	10(50.0)
화장		1(7.1)	12(85.8)	1(7.1)
재봉		9(56.3)	6(37.5)	1(6.2)
TV 시청		5(25.0)	8(40.0)	7(35.0)
독서		2(15.4)	9(69.2)	2(15.4)
손빨래		3(30.0)	7(70.0)	.
빨래개키기		10(50.0)	9(45.0)	1(5.0)
다림질		3(17.6)	14(82.4)	.
김치담그기(배추씻기)		9(56.3)	7(43.7)	.
김치담그기(버무리기)		14(87.5)	2(12.5)	.

* 해당 주생활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34)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주택유형 중 부엌과 방 1, 2칸인 경우가 35.0%(7사례), 원룸 형식인 경우가 30.0%(6사례)였다.

〈표 6〉 주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공간별 바닥재료	거실f(%)		침실f(%)		부엌f(%)		식사공간f(%)		욕실f(%)		화장실f(%)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독
나무+카펫	5(50.0)	2(20.0)	5(50.0)	6(60.0)	1(10.0)	1(10.0)	1(10.0)	1(10.0)
비닐+카펫	5(50.0)	8(80.0)	5(50.0)	4(40.0)	4(40.0)	2(20.0)	4(40.0)	2(20.0)	2(20.0)	.	2(20.0)	.
나무	2(20.0)	4(40.0)	2(20.0)	4(40.0)
비닐	3(30.0)	1(10.0)	3(30.0)	1(10.0)	1(10.0)	.	1(10.0)	.
타일	6(75.0)	1(10.0)	2(20.0)
타일+러그	6(60.0)	.	5(50.0)	1(10.0)
시멘트	2(20.0)	.	2(20.0)	.	2(25.0)	.	7(70.0)
시멘트+러그	1(10.0)	.	1(10.0)	.
계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8(100)	10(100)	10(100)

* 단독주택 1사례는 욕실이 없었음.

반면 버무리기 작업은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14사례(87.5%)로 서서 하는 경우(2사례:12.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김치 담그는 작업을 대부분 마당에서 하므로 배추씻기와 버무리기를 모두 바닥에 앉아서 하기 때문이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배추 씻기는 싱크대에 서서 그리고 버무리기는 부엌 바닥 혹은 베란다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주생활은 침대와 식탁, 소파 등을 사용하는 입식 위주였으나 대가족 식사나 친구 접대 등 특정 항목에서는 바닥을 사용하는 좌식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의 주생활에 입식 중심의 러시아 문화와 좌식 중심의 중앙아시아 문화 그리고 역시 좌식을 근간으로 하는 한민족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파악되었다.³⁵⁾

한편, 재한 고려인의 경우 입식과 좌식 정도를 살펴보면 이들은 취침 시 침대를 사용하고 식사 시에는 식탁이나 탁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등 뚜렷한 입식 지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³⁶⁾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침대와 식탁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구소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침과 식사에서의 입식 지향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공통적으로 손님접대와 가족단란 등에서 입식과 좌식의 비율이 유사한 것은 고려인의 주생활에 전통적으로 입식과 좌식이 혼용되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가사작업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림질 작업이 입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에서는 입, 좌식 겸용인 것 그리고 입식 위주였던 손빨래가 한국에서 좌식 위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설비와 생활에 적응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활에서 가장 강한 입식 지향을 보인 것은 취침과 식사였으며 그 외의 기타 항목은 적응과 변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공간 별 바닥재의 구성

조사대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거실의 경우 아파트는 나무에 카펫을 깔 경우와 비닐에 카펫을 깔 경우가 각각 5사례(50.0%)씩이었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닐에 카펫을 깔 경우가 80.0%(8사례)로 많았는데 이는 조사대상 단독주택에서 구들이 있는 경우 이를 거실(손님칸)로 사용하고 있고 이 경우 구들의 흙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카펫을 깔기 때문이다. 침실의 경우 아파트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카펫을 깔 경우와 비닐에 카펫을 깔 경우가 각각 50.0%(5사례)씩이었으며 단독주택은 나무에 카펫을 깔 경우가 60.0%(6사례)로 가장 많았다. 부엌과 식사공간은 아파트의 경우 비닐을 깔거나 혹은 비닐에 카펫을 깔 경우가 각각 40.0%(4사례)와 30.0%(3사례)씩이었으며 단독주택은 나무인 경우가 40.0%(4사례)씩으로 많았다. 욕실은 아파트의 경우 타일에 러그(rug)를 깔 경우가 60.0%(6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타일(6사례:60.0%)이 많았다. 화장실은 아파트의 경우 욕실과 마찬가지로 타일(5사례:50.0%)이 많았고 단독주택은 시멘트인 경우(7사례:70.0%)가 많았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야외에 화장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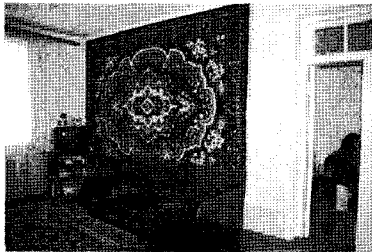
조사대상 지역에서 거실과 침실 그리고 부엌에까지 카펫을 까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이는 조사대상 지역의 주거 문화로 카펫은 바닥에 까는 '발라스'와 벽에 거는 '까보르'

35) 중앙아시아는 좌식문화권으로 구루바차(송방석), 다스따라한(교자상), 답창(명상)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의 영향으로 침대와 식탁 등을 사용하는 등 입식 생활이 혼합되기 시작하였으나 중앙아시아인들의 전통적인 좌식 문화는 고려인들의 현지 적응을 용이하게 해 준 한편 고려인의 구들이 지속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이영심, 이상해, 2004).

36) 재한 고려인의 61.1%(11사례)가 침대를 사용하였고 61.1%(11사례)가 식사 시 식탁과 탁자를 사용하였다.



〈사진 14〉 화장실 바닥재인 타일과 카펫(단독주택:K씨댁)



〈사진 15〉 침실 벽의 까보르와 바닥의 발라스(단독주택:L씨댁)

로 구분된다(사진 15). 거실의 소파 윗 벽 혹은 침실의 침대 옆 벽에 거는 까보르는 벽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까보르를 벽지 혹은 그림 등으로 대체하는 등 그 선호 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발라스는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 상 바닥의 보온을 위해 앞으로도 그 사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바닥재는 나무로 평가되었는데 조사대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자의 각각 40.0%(4사례)가 바닥재를 모두 나무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대상 아파트 거주자의 3사례(30.0%)가 비닐 바닥재를 나무로 바꾼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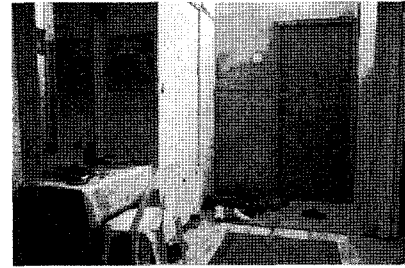
한편,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 주택의 바닥재는 침실과 거실, 부엌이 모두 비닐장판이었고 이들의 반 수 정도가 비닐장판에 카펫(carpet) 혹은 카펫 대용의 깔개를 깔고 있었으며 벽에 깔개를 건 경우가 1사례 있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³⁷⁾ 고려인들은 카펫 혹은 깔개를 깔 이유로 “따뜻하기 때문에”와 “습관이기 때문에”를 함께 언급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서 이들의 주거문화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재한 고려인의 대부분이 나무 바닥재를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나무 바닥재를 선호하였던 것과 공통점이 있다.³⁸⁾

4) 신발 착용 공간의 사용

조사대상자들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는데



〈사진 16〉 현관 앞의 옷장과 슬리퍼를 구비한 모습(단독주택: L씨 댁)



〈사진 17〉 현관 앞의 신발 벗어둔 모습(아파트: W씨 댁)

전체의 85.0%(17사례)가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였고 나머지 3사례는 슬리퍼 대신 두꺼운 털양말을 신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주택들이 현관의 신발 벗는 곳에 슬리퍼를 구비하여 바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손님에게 슬리퍼를 권하는 것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접대의 의미가 있다(사진 16). 슬리퍼를 착용하는 이유는 발이 축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 구들방이 있는 경우에도 슬리퍼 혹은 두꺼운 털양말을 착용하고 있어 이는 조사대상 지역의 관습으로 추정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은 단독주택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관에 신발을 벗기 위한 단차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3.2%(12사례)가 단차가 있는 것이 좋다고 답함으로써 현재 거실의 일부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4사례(40.0%) 이외에는 모두 불박이 신발장이 있었으며 단독주택은 모두 스스로 신발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현관문 주변에 벗어놓은 신발들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모두 현관에 매트 혹은 이와 유사한 깔개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사진 17).

37)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 주택의 경우 거실을 갖춘 경우는 전체에서 7사례(35.0%)였다.

38)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85.0%(17사례)가 나무 바닥재를 가장 이상적인 바닥재로 평가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재한 고려인들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으며 신발 착탈을 위한 현관의 단차에 대해서 “없는 것이 좋다”는 경우는 아주 적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관 단차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많은 재한 고려인들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찬 이유 이외에 일정 부분은 관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³⁹⁾

5) 난방방식의 사용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표 7)과 같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경우 모두 라디에타 난방이었으며 단독주택은 라디에타 난방과 함께 개량 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8사례(80.0%)였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아파트의 경우 라디에타 난방은 중앙 공급식으로 10월 중순-4월 중순까지 공급된다. 단독주택의 라디에타 난방은 가스를 연료로 개별 보일러를 가동하여 사용하며 개량 구들 역시 가스를 연료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 단독주택에서 개량 구들이 있는 경우는 80.0%(8사례)였으며 이 중 4사례가 2칸 이상의 구들방을 가지고 있었다.⁴⁰⁾ 조사대상 지역에서 단독주택은 대개 본채와 별채 등 2채 이상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1940년대-1950년대의 정착 시기에 건축한 것이며 여기에 추가로 방을 덧붙이거나 혹은 별도의 채를 건축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이룬 것이다. 본채에 개량 구들이 있는 경우는 3사례였는데 이는 부모의 집을 물려받아 구들을 현대식으로 고친 것이며 나머지 5사례는 증축하면서 구들방을 만들거나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구들을 계획한 경우였다.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하는 조사대상자의 난방에 대한 거주자 만족정도는 평균 3.3점이었던 반면 구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4.1점으로 더 높았다.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하는 조사대상자들의 83.3%(10사례)가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구들을 들었고 이들의 91.7%(11사례)가 구들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에서 고려인들의 구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 각각 2사례(20.0%)씩 에 불과했으나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66.7%(8사례)가 전기난로 등의 난방도구를 사용하고

고 있어 현재의 난방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택의 난방 방식은 모두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바닥 난방이었다. 재한 고려인들은 난방 정도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였으며 특히 개인이 난방의 수급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재한 고려인 모두 구소련 지역에 거주할 당시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하였으나 많은 경우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온수바닥 난방을 들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경우와 같았다(이영심, 최정신, 2008).⁴¹⁾ 중국 거주 조선족과 재한 조선족의 경우 역시 이상적인 난방 방식으로 온수바닥 난방을 든 연구 결과는 온수바닥 난방이 새로운 주거 환경에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온수바닥 난방의 보급 가능성을 시사한다(이영심, 최정신, 2007).

6) 기타 주거관련 항목 평가

조사대상자들의 주거비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이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여기에 난방요금, 설비수리 요금, 쓰레기처리 요금 등이 부가된다.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한 달 평균 5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거주자 부담 정도는 3.5점으로 보통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주택에서 평균 20년을 거주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80.0%(8사례), 단독주택의 경우 55.6%(5사례)가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더 큰 아파트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가 각각 37.5%(3사례)였던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더 좋은 단독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경우가 80.0%(4사례)인 것으로 파악되어 단독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집을 살 때 손넌칸과 부엌을 비롯한 방의 크기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부엌(63.2%:12사례)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건축 시 그리고 주택 구매 시 주택의 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거주자 만족 정도는 3.5점으로 보통이었다.

한편 재한 고려인의 주거비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한 달 평균 약 10만원을 지출하였고 거주자 부담 정도는 3.5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이들의 대부분이 한 달 평균 약 24만원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어 총 생활비용의 부담은 큰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주택을 얻을 때

〈표 7〉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 방식 및 만족정도

난방방식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만족정도
라디에타		10(100%)	2(20.0%)	3.3점
개량구들+라디에타			8(80.0%)	4.1점
계		10(100%)	10(100%)	

39) 재한 고려인이 현관 단차가 “없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경우는 15.0%(3사례)에 불과했으며 재한 고려인의 65.0%(13사례)가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0) 조사대상 지역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80% 정도는 구들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구들을 놓기도 하는데 고려인과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따따르인들이 그루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표 8〉 재한 고려인을 위한 주거계획 요소의 내용

주거계획 요소	지역별 선호	우즈베크	재한	앞으로의 계획요소	
	우즈베크	고려인	고려인	지속	변화
부엌의 분리·통합	분리	분리	분리	분리계획	·
세탁기 사용장소	욕실	욕실	욕실	욕실사용	·
욕조 유무	있는것	있는것	있는것	욕조계획	·
배수구 유무	있는것	있는것	있는것	·	배수구계획
난방방식	바닥난방	바닥난방	바닥난방	·	바닥난방
현관단차 유무	있는것	있는것	있는것	·	단차계획

방의 크기를 우선 고려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경우와 같았다. 재한 고려인은 거실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집을 살 때 손님간의 크기를 우선 고려하는 점과 공통점이 있다.⁴²⁾ 재한 고려인 역시 주택을 고를 때 특정 방향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8).

이상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재한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이들의 주거문화 요소의 지속 정도 그리고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정리하였다. 앞으로의 주거계획 요소에서 '지속'은 우즈베키스탄의 주거계획 요소를 그대로 수용, 선호함을 의미한다. 즉, 우즈베키스탄은 일반적으로 부엌을 분리하여 계획하고 세탁기는 욕실에서 사용하며 욕실에 욕조를 두는 것이 보통으로 이를 선호함은 앞으로의 주택 계획에서 전통의 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변화'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주거계획 요소와는 다른 것을 선호하는 것인데 즉, 욕실에 배수구를 계획하고 라디에타 난방보다는 바닥 난방을 선호하며, 현관에는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를 만드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전통과는 다른 변화의 요소로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 요소라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구소련 지역 출신 고려인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이들의 주거문화 중 지속성이 강한 요소와 동화, 변화의 가능성이 큰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부엌을 기타 공간에서 분리 계획하는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러시아식과 중앙아시아식 그리고 한국식이

혼합되어 있는 이들의 음식문화 그리고 주거공간을 기능별로 분리 계획하는 구소련 지역의 주거공간 계획 등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오랫동안 형성된 관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부엌의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부엌에 대한 요구는 부엌의 면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들 모두 집에서 손님 초대가 일상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관습적인 면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부엌 크기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계획 요소로 파악되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고려인들(90.0%)이 욕조를 필수 요소로 간주하였고 많은 수의 재한 고려인들(80.0%) 역시 욕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욕실 계획 시 욕조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고려인들의 원 거주지인 구소련 지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욕실 바닥의 배수구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70.0%)과 재한 고려인(85.0%) 모두 배수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에게 욕실 바닥의 배수구 계획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욕실과 화장실의 구성형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65.0%)과 재한 고려인(55.0%) 모두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동시에 두 곳을 사용할 수 있는 분리 유형이 이들에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과 재한 고려인 모두 세탁기를 욕실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세탁기를 둘 적정 장소로 욕실을 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욕실에 세탁기를 두는 것은 현재의 주거 상황에 의거한 이유 이외에 관습적인 사용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한 고려인의 경우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베란다 등으로 세탁기의 사용 장소가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가사작업인 손빨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설비의 계획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생활에서 취침과 식사는 공통적으로 강한 입식 지향을 보였으며 손님접대와 가족단단 등에서는 입식과 좌식을 혼용하였고 그 외 항목은 우리나라에 이주한 후 좌식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관습으로 자리 잡은 취침과 식사 시의 입식 생활을 포용할 수 있는 주택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나무 바닥재를 이상적인 바닥재로 들고

41)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65.0%(13사례)가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온수바닥 난방을 들었다.

42) 선행연구에서 재한 고려인의 75.0%(15사례)가 한 달 평균 약 24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고 이들은 거실(9사례:45.0%)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였다.

있어 이들을 위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파악되었다. 고려인들의 원 거주지인 구소련 지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현관의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 그 요구 정도가 높아 주택 계획 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곱째, 구소련 지역의 전통적인 난방방식인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하여 온 고려인들의 이상적인 난방방식은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온수바닥 난방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온수바닥 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높아 이들을 위한 난방방식은 온수바닥 난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온수바닥 난방은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무 바닥재 그리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카펫 혹은 바닥 깔개와 함께 이상적인 실내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주택을 얻을 때 공통적으로 방의 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거실 즉, 손님칸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주택 계획 시 가족단위와 손님접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의 면적 및 위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을 연구하고 이를 재한 고려인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고려인들의 주거문화를 이해하고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계획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제시된 계획 요소들은 주거 규모에 따라 선택,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역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주거문화를 고려한 주거 계획 요소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6-11.
국립민속박물관(1999).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혜경, 임채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2005). **고려인 인구 이동과 경제환경**. 경기도: 집문당.
매일경제(2008.2.5 제13068호 1면). '한국 10년 내 다민족국가 된다'. 보도자료.
매일경제(2008.2.5 제13068호 5면). '소득 2만 달러 넘은 한국, 이제 이민 수입국'. 보도자료.
박명규(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 지성사.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혜경, 강수돌(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경기도: 지식마당.
외교통상부(2001). 재외동포현황.
윤인진(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영심, 이상해(2004).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1-18.
이영심, 최정신(2007). 재한(在韓) 조선족(朝鮮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5(9), 15-26.
이영심, 최정신(2008).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의 주거 및 주생활 -재한(在韓)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 **대한가정학회지**, 46(4), 47-59.
이희봉(1998). 재미 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중앙일보(2007.7.8 제17호 10면). '서울속 외국인 마을 10곳 심층해부'.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2007.8.24).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불법체류도 급증'.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2008.2.15). '올해 외국인 근로자 13만 2000명 입국'. 보도자료.
한겨레신문(2006. 12.23 제5868호 5면). '이주노동자 주거 열악 정부 지원대책, 아직은....'. 보도자료.

접 수 일 : 2008년 4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21일